

[제1화: Hello, World]

타닥, 타다닥, 타닥.

새벽 4시의 적막을 깨는 건 오직 기계식 키보드의 경쾌한 타건음뿐이었다.

서울의 한 구석진 오피스텔.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방 안을 지배하는 건 32인치 듀얼 모니터가 뿜어내는 서늘한 푸른 빛이었다. 책상 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카페인 중독자라는 걸 증명하듯 쌓여 있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 먹다 남은 샌드위치 포장지, 그리고 인공눈물 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아... 진짜 양심이 없네, 양심이."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나직하게 욕설을 씹어뱉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일반인들이라면 쳐다만 봐도 현기증을 느낄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번에 의뢰받은 건, 국내 대기업 S사의 사내 보안망 리뉴얼 작업이었다. 말은 리뉴얼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거의 재건축 수준이었다. 전임자가 싸지르고 도망간 똥을 치우는 게 내 임무였다.

"변수명 꼬라지 보라. temp1, temp2가 뭐냐?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짜겠다."

스파게티처럼 뒤엉킨 로직을 볼 때마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메모리 관리는 엉망이고, 예외 처리는 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대로 서버를 올렸다면 트래픽이 조금만 몰려도 바로 섯다운될 게 뻔했다. 이런 코드를 짜 놓고 월급을 받아 갔을 전임자를 생각하니 배가 아팠다.

내 이름은 강진혁. 한때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와 전설적인 천재로 불렸으나, 교수의 구시대적인 교육 방식에 반기를 들고 자퇴했다. 그 후 제도권 교육과 조직 생활에 환멸을 느껴 골방에 틀어박힌 프리랜서 개발자. 그게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회 부적응자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동정이 우스웠다.

현실은 비효율적이다.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가, 논리보다는 윗사람의 기분이 더 중요한 세상. 버그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는 게 미덕인 사회. 나에게 현실은 똥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코드는 다르다. 0과 1. 참(True)과 거짓(False). 이곳에는 모호함이 없다. 입력이 명확하면 출력도 정직하다. 내가 명령하면 움직이고, 내가 통제하면 멈춘다. 나에게 코딩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에 나만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좋아. 쿼리 최적화 끝났고. 보안 허점도 다 막았고."

나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타다다닥!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 속의 붉은 에러 메시지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깔끔하고 우아한 함수들이 채워 나갔다. 마치 더러운 진흙탕을 걷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보석을 깎아내는 기분.

이 순간만큼은 피곤함도 잊었다. 뇌가 명징하게 깨어나고, 전신의 감각이 모니터 속 커서 하나에 집중되는 몰입의 상태. 개발자들이 흔히 말하는 '존(Zone)'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빙고."

마지막 종괄호를 닫았다. 72시간. 꼬박 사흘 밤을 새운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화면 상단의 '빌드(Build)' 버튼으로 커서를 옮겼다. 이제 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짠 코드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한다. 단 하나의 오타나 논리적 오류가 있어도 실패하는 냉정한 심판의 시간.

딸각.

[Compiling...]

화면 중앙에 로딩 바가 나타났다. 초록색 게이지가 차오르는 동안, 나는 숨 쉬는 것도 잊고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다.

제발. 완벽해야 해. 나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어.

[Build Successful.] [Errors: 0, Warnings: 0]

".....됐다!"

나는 책상을 쿵 내리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에러 0개. 경고 0개. 완벽한 무결점(Zero Defect). 그 단어가 주는 짜릿한 쾌감은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력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고,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땡 뚫리는 것 같았다.

"하하, 봤냐? 이게 내 실력이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허공에 대고 샷대질을 했다. 클라이언트 놈들이 이 코드의 예술성을 알아줄 리는 없겠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만족했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곧 입금될 두둑한 잔고가 내 가치를 증명해 줄 테니까.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사흘간 혹사당한 몸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깨는 돌덩이를 엮은 듯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일단 좀 자자. 자고 일어나서 고기나 구워 먹어야지."

나는 기지개를 켜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낡은 듀오백 의자가 끼이익 소리를 냈다. 모니터를 끄고 침대로 기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작업이 끝났는데. 컴파일도 성공했는데. 모니터 화면이 꺼지지 않았다.

"응? 뭐지? 렉 걸렸나?"

마우스를 흔들어 보았지만 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키보드를 두드려 봐도 반응이 없었다. Ctrl+Alt+Delete를 눌러 작업 관리자를 띄우려 했지만, 컴퓨터는 묵묵부답이었다.

"아, 안 되는데. 저장하고 끄는 거 깜빡했나? 설마 날아가진 않았겠지?"

등골이 서늘해졌다. 72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황급히 본체 전원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강제로라도 재부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버튼에 닿기도 전에, 모니터 화면이 스르륵 바뀌었다.

고장 난 게 아니었다. 마치 리눅스 터미널 창을 처음 켜올 때처럼, 깔끔한 검은색 바탕에 흰색 커서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

그 단순하고 명료한 화면은 개발자인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래서 더 의아했다. 난 터미널을 연 적이 없는데?

이내 흰색 커서가 움직이며 글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 위로 흰색 커서가 깜빡였다.

```
Connecting to Server...  
Download Complete.
```

간결한 메시지였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데? 랜섬웨어라도 심었냐?"

나는 짐짓 여유로운 척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내심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천재 해커가 내 PC를 장악해서 보여줄 퍼포먼스가 고작 텍스트 몇 줄은 아닐 테니까.

그때였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류 경고음 같은 불쾌한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모바일 게임에서 최고 등급인 SSR 아이템을 뽑았을 때 나오는 팡파르처럼, 듣기만 해도 기분이 고양되는 맑은 사운드였다.

동시에 모니터 화면이 팟 하고 밝아졌다.

하지만 빛은 모니터 안에 머물지 않았다. 액정 화면의 사각 프레임을 넘어, 빛의 입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3D 영화를 안경 없이 보는 것처럼, 화려한 그래픽 UI가 허공에 둥둥 떠올랐다.

"오... 그래픽 죽이는데?"

나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다.

이건 단순한 홀로그램이 아니었다. 해상도가 미쳤다. 눈앞에 떠 있는 아이콘의 픽셀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4K? 8K? 아니,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초고화질이였다.

내 방 안을 유명하던 빛의 입자들은 곧 하나의 거대한 문장을 만들어냈다.

[System Update Ready]

"업데이트? 내 컴퓨터를?"

나는 픽 웃으며 손을 뻗어 허공의 글자를 만져보려 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없었지만, 시각적인 만족감은 대단했다. 요즘 나오는 증강현실(AR) 글래스도 이 정도 퀄리티는 못 낸다.

그런데 변화는 내 방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웅성웅성.

창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새벽 4시의 조용한 주택가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음이었다.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뭐야, 밖에서도 보여?"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자, 내 눈앞에 믿기 힘든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와....."

입이 절로 벌어졌다.

서울의 밤하늘. 평소라면 미세먼지와 광공해로 뿌옇게 보여야 할 그곳이, 지금은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있었다.

밤하늘 전체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반투명 윈도우 창.

그 테두리는 마치 판타지 게임의 UI처럼 황금색 덩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세련된 폰트로 공지사항이 출력되고 있었다.

[Global Server Notice]

[지구 서버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마치 지루한 일상이라는 게임이 끝나고, 대규모 확장팩이 열리는 날의 설렘과 비슷했으니까.

거리의 풍경도 장관이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찍느라 바빴다.

"저거 봐! 저거 뭐야? 드론 쇼인가?"

"야, 대박! 영화 촬영하는 거 아냐?"

"빨리 인스타 올려! 실시간 검색어 1위작이다!"

공포나 혼란보다는 호기심과 흥분이 지배하는 분위기. 하긴, 요즘 세상에 하늘에 글자 좀 떴다고 지

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부분은 나처럼 대기업의 초대형 이벤트거나 신기술 시연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나는 창문에 팔을 괴고 하늘에 뜬 패치 노트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Ver 2.0 업데이트 내역]

1. 신규 리소스 마나(Mana) 추가
2. 던전 및 필드 몬스터 데이터 로드
3. 플레이어 시스템 활성화

"마나에 몬스터라... 컨셉 확실하네."

나는 턱을 쓰다듬었다. 개발자로서 평가하자면, 저 기획은 꽤 매력적이었다. 팍팍한 현대 사회에 판타지 스킨을 씌우겠다는 거잖아? 기획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요즘 트렌드를 좀 아는 놈이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탐났다. 하늘에 저런 영상을 띄우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렌더링은 실시간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미리 준비된 소스를 재생하는 건가?

직업병이 도졌다. 저 거대한 시스템의 백엔드(Back-end) 구조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소스 코드를 훑쳐볼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하늘의 메시지가 바뀌었다.

[설치 완료.]

[지금부터 사용자별 권한을 배포합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거대한 창이 평 하고 터지듯 흩어졌다.

수천, 수만 개의 빛줄기가 유성우처럼 서울 시내로 쏟아져 내렸다. 폭죽놀이보다 훨씬 화려하고 환상적인 광경이었다.

"예쁘네."

나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감상했다. 빛줄기들은 제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빛이 떨어지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무차별 폭격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저건 공격이 아니야.'

낙하 속도가 일정하다. 폭발 범위도 없다. 저건 무언가를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Packet)의 흐름이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빛이 있었다.

다른 빛들보다 훨씬 굵고, 선명한 푸른색을 띤 빛줄기. 그것이 마치 나침반이라도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있는 건물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어? 저거 이쪽으로 오는데?"

나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무리 데이터라고 해도 저만한 크기의 빗덩어리가 정면으로 날아오는 걸 보고 태연할 수는 없었다. 피해야 하나? 아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슈우우웅-

빗줄기가 창문을 통과했다. 우리는 깨지지 않았다. 빛은 마치 유령처럼 벽과 사물을 통과해 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내 눈앞에서 멈춘 빗 덩어리는 부드럽게 일렁이며 형태를 갖춰나갔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입만 뻐끔거렸다.

"뭐야, 이건 또..."

내가 미쳐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이었다.  
정지해 있던 빛의 구체가 갑자기 팽창하더니, 그대로 나를 향해 쇄도했다.

번쩍!

"으악!"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충격은 없었다. 대신 전신을 타고 흐르는 찌릿한 전류와 함께, 시야가 디지털 데이터로 뒤덮였다.

[데이터 동기화 완료.]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고유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익숙한 내 방 천장이 아니었다. 시야 정중앙에 고정된 채, 내가 고개를 돌려도 따라오는 반투명한 창 하나.

마치 강제로 실행된 팝업 광고 같았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눈앞에 뜬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 진짜. 닫기 버튼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반투명한 푸른색 창은 마치 시신경에 문신이라도 새긴 것처럼 끈질기게 시야를 따라다녔다. 눈을 감아도 텍스트는 선명했다.

"하... 알았어. 본다, 봐."

나는 체념한 듯 침대에 걸터앉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거창한 업데이트가 내 인생에 어떤 기능을 설치했는지 확인이나 해볼 생각이었다.

나는 눈앞의 창을 응시했다.

보통 게임이라면 힘이나 민첩 같은 스탯이 주르륵 뜨거나, 내 이름과 직업 같은 신상 정보가 나와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 불친절한 시스템은 잡다한 텍스트를 모두 생략했다. 화면 중앙에는 오직 두 개의 슬롯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Slot 1. 고유 코드 (Unique Code)]

[Slot 2. 등급 (Grade)]

"심플하네. 딱 핵심만 보여주겠다 이건가?"

군더더기 없는 UI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 중요한 건 내가 남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니까.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첫 번째 슬롯, [고유 코드] 칸이 빛나기 시작했다.

위잉.

짧은 진동과 함께 텍스트가 출력되었다.

[고유 코드: 코딩 (Coding)]

".....어?"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코딩.

C. O. D. I. N. G.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나는 허탈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트렸다.

"장난해? 여기서도 코딩을 하라고?"

검과 마법, 몬스터가 튀어나올 세상에서 기껏 받은 능력이 코딩이라니. 뭐 어쩌라는 건가. 오크가 달려들면 키보드로 뚝배기라도 깨라는 건가? 아니면 드래곤한테 자바 (Java) 기초 문법이라도 강의해야 하나?

"와, 진짜 너무하네. 72시간 밤샘 코딩하다가 각성했는데, 또 코딩이라니! 이건 산재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억울함에 씩씩거렸다. 시스템이 나를 영원한 일개미로 부려 먹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코딩]이라는 단어를 곹씹었다. 개발자의 이성이 감정을 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이 단어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다.

"잠깐."

내 눈빛이 가라앉았다.

이 세상은 방금 '서버 업데이트'를 마쳤다. 물리 법칙이 데이터로 바뀌고, 마나가 리소스로 정의된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가 아니다.

"세상이 데이터라면... 코딩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권능이잖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에 소름이 짝 돋았다.

불을 쏘는 스킬(함수)을 즉석에서 짜낼 수도 있다.

내 몸의 내구도(변수)를 강철처럼 수정할 수도 있다.

남들은 시스템이 정해준 룰 안에서 퀘스트나 깰 때, 나는 그 룰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쳤네."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댔다.

이건 통망 스킬이 아니었다. 이해도에 따라 신에 근접할 수도 있는, 가장 압도적인 조커(Joker)였다.

"이건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내 실력이라면 무조건 대박이지."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말려 올라갔다.

그때, 두 번째 슬롯인 [등급] 칸이 활성화되었다. 내 능력의 가치를 매기는 최종 성적표였다.

[등급 산정 중...]

화면의 게이지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Low... Middle... High...

일반적인 등급을 순식간에 돌파했다. 게이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차올랐다.

시스템은 오류를 뱉지 않았다. 다만, 이 거대한 권능에 걸맞은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다.

[등급: Admin (관리자)]

".....관리자?"

순간, 뇌리에 전율이 흘렀다.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그 무게감이 달랐다.

플레이어(Player)가 아니다.

이 시스템 위에서 뛰노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관리자(Admin)'.

그 단어가 내 시야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치지직.

시야에 노이즈가 낀 듯 일렁였다.

방 안에 굴러다니던 빈 캔, 낡은 책상, 켜져 있는 모니터. 그 모든 사물의 표면 위로 초록색 글자들이 비가 내리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Object: Empty Can] [State: Trash]

[Object: Desk] [Durability: 15%]

세상의 껍데기가 벗겨졌다. 만물을 구성하는 소스 코드(Source Code), 즉 세상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가락 사이로 데이터의 흐름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오피스텔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위로, 푸른색 [Admin] 마크가 왕관처럼 선명하게 겹쳐 보였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지겠는데."

지루하고 불합리했던 현실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디버깅할 차례였다.